

- [91] 喧鬧 [92] 蠱脹 [93] 剿襲
- [94] 罌粟 [95] 膾炙 [96] 蓬瀛
- [97] 休咎 [98] 否塞 [99] 斬衰
- [100] 豕圈

[問 79-100] 위 漢字語 [79]~[100]의 讀音을 쓰시오.

[問 101-103] 위 漢字語 [79], [80], [81]의 뜻을 쓰시오.

[問 104-106] 위 漢字語 [82], [83], [84]의 轉義을 쓰시오.

[問 107-110] 위 漢字語 [79] ~ [100]에서 反義字로 된 것 4개를 가려 그 번호를 쓰시오.

[問 111-113] 다음 밑줄 친 漢字語의 反義語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111] 백화점에서 販賣하는 수입품
- [112] 濃厚한 위법 혐의
- [113] 근대화론에서 말하는 進步의 대립 개념은?

[問 114] 다음 ()에 들어갈 ㉠, ㉡의 漢字를 순서대로 쓰시오.

(※ 순서가 바뀌면 오답 처리함)

- 샐을 주고 사람을 부리면 雇(㉠),
- 샐을 받고 남의 일을 하면 雇(㉡).

[問 115-117] 다음 짝지은 사자성어가 같은 뜻이 되도록 () 안에 알맞은 漢字를 쓰시오.

- [115] 沈魚落雁 - 閉()羞()
- [116] 橫來之厄 - ()及()魚
- [117] 琴瑟相和 - 連()比()

[問 118-127] 다음 글에 해당하는 사자성어를 완성하십시오.

- [118] 요즈음 자주 듣는 말, ‘내로남불’.
我()他()
- [119] 하는 일 모두 올바르게 못했다.
舉()失()
- [120] 너만 믿는다고 임명해 놓고 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처벌하니.
()家撞()
- [121] 아무 관계없이 한 일인데 공교롭게 때가 같아 무슨 관계인가 의심받다.
()飛()落
- [122] 집값 너무 올라 어쩔 수 없이 무슨 법인가 만드니.
苦()之()
- [123] 그러나 그 법도 임시방편으로 큰 효과 없을 듯하니 그 느낌은.
()足()尿
- [124] 한 사람이 여러 재주를 갖출 수는 없는 법.
()者無()
- [125] 강한 자들 싸움 틈에 끼어 관계없는 자가 해를 입는다.
鯨()蝦()

[126] 보고 들은 것 없어 세상 돌아
가는 상황을 모르는 사람.

坎()()蛙

[127] 일을 그르친 뒤에 뉘우쳐도
소용없다.

()牛()牢

[問 128-137] 다음 밑줄 친 同音異義語
를 文脈에 어울리도록 漢字로 쓰시오.

- [128]공포된 ××처벌법에 지난 날
군부의 [129]공포 정치가 떠오른
다.
- [130]종전 주장 그대로 [131]종전
선언만 요구하는 5차 평화회담 대
표.
- 중동산 [132]경유 실고 호르무즈해
협 [133]경유하여 어제 돌아온 유
조선.
- 구제역 쫓소 [134]구제는 쫓소 농
가를 [135]구제하는 일.
- 학생들을 [136]교사하여 자신의 비
위를 정당화하려 한 [137]교사한
교사가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8]~[177])

I. 옛날 전쟁 때 [138]화공 그 자체의
[139]위협보다 발생하는 연기에
[140]질식되는 것이 더 무서웠다.
이에 대처한 것이 마스크다. 요즘
마스크는 [141]병균의 [142]전파를
[143]차단하는 [144]의료용으로

[145]권장되고, 그밖에도 공사장
[146]분진을 막기 위한 것, 황사
[147]미세 입자를 막기 위한 것
등이 있다.

II. 21세기도 20년이 지난 지금 정조
때 徐有榘^{서유구}의 『[148]임원경제지』
가 눈길을 끈다. 삼촌 유배형에
[149]연루되어 낙향, [150]순박한
농민들 틈에 끼어 그들의 [151]기아
를 보며 지은 실용주의 백과사전이
다. 도배에서 어떤 [152]아교를 써
야하느냐 하는 사항까지 들어있다.
18년 뒤 관직에 복귀했으나 세상
은 여전히 [153]소란했다. 스스로
지은 [154]묘지명에는 [155]졸렬
했던 선비 생활에 대한 [156]성찰
이 있다.

III. [157]섬유는 옷을 만드는 [158]직물
의 원료다. 어디에서 [159]추출했
는가에 따라 식물성 동물성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화학적 [160]조성
에 따라 그 계통을 구분하기도 한
다. 식물성 섬유는 [161]신축성이
적고 동물성 섬유는 [162]탄성 회
복력이 좋다. ... 합성 섬유는
[163]폐기 후 사용 과정에서
[164]오염 물질이 발생하기 쉽다.

IV. 새로 찾은 高宗 황제의 [165]시조
영역 [166]역사. ⓐ 內帑^{내탕}에
[167]탁지부 지출금으로 전라관찰
사 이완용이 [168]주관한 [169]거창
한 일에 백성들 원성이 컸다.

함경도에서 왔다는 지관 周氏가 300년 더 [170]국조가 이어진다는 ⑥識書를 몰래 물었다가 함경도에서 [171]발굴한 것이라고 [172]봉정하니 고종이 [173]만면에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참 [174]허망한 것이 그 6년 뒤 을사조약이 [175]체결되었고 또 5년 뒤 나라가 사라졌다.

[問 138-175] 윗글 밑줄 친 漢字語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問 176-177] 윗글 IV의 밑줄 친 漢字語를 ㉠, ㉡의 讀音을 쓰시오.

[問 178-180] 다음 漢字의 略字를 쓰시오.

[178] 膽 [179] 竊 [180] 遞

※ 다음 漢文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孝宗郎 遊南山鮑石亭 門客星馳 有二客獨後 郎 問其故 曰 芬皇寺之東里有女 年二十左右 抱盲母相號而哭 問同里 曰 此女家貧乞 啜(홀떡거리 썰)而反哺有年矣 適歲荒 倚門難 以藉手 贖賃他家 得穀三十石 … 日暮來家 炊餉伴宿 … 如是者數日矣 母曰 昔日之糠粃 心和且平 今日之秬(메벼) 羹 膈肝若刺而心

未安 何哉 女言其實 母痛哭 女嘆已之但能 口腹之養 而失於色難也 故相持而泣 見此 而遲留爾

- [181] ①門客의 뜻을 쓰시오.
- [182] ②星馳의 뜻을 쓰시오.
- [183] ③後는 무엇을 말하는지 쓰시오.
- [184] ④故의 내용을 쓰시오.
- [185] ⑤左右를 다른 말로 바꾸시오.
- [186] ⑥相號而哭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 [187] ⑦反哺의 뜻을 쓰시오.
- [188] ⑧有年의 뜻을 쓰시오.
- [189] ⑨適의 문맥 상 뜻을 쓰시오.
- [190] ⑩歲荒의 뜻을 쓰시오.
- [191] ⑪倚門의 뜻을 쓰시오.
- [192] ⑫藉手의 문맥상 의미를 쓰시오.
- [193] ⑬贖賃의 뜻을 쓰시오.
- [194] ⑭炊餉의 뜻을 쓰시오.
- [195] ⑮糠粃의 轉義를 쓰시오.
- [196] ⑯膈肝의 뜻을 쓰시오.
- [197] ⑰若은 이 글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쓰시오.
- [198] ⑱但能口腹之養을 번역하시오.
- [199] ⑲色難은 무엇을 말하는지 쓰시오.
- [200] ⑳遲留의 뜻을 쓰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수험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 유성 싸인펜, 붉은색 필기구 사용 불가.

※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기거나 더럽히지 마시고, 정답 칸 안에만 쓰십시오.

글씨가 채점란으로 들어오면 오답처리가 됩니다.

제92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Ⅱ [국가공인] 답안지(1)

답안란		채점란		답안란		채점란		답안란		채점란	
번호	정답	1점	2점	번호	정답	1점	2점	번호	정답	1점	2점
1	이를 흘			31	臼			61	접선		
2	뒤섞일 효			32	卜			62	협애		
3	가릴 추			33	寸			63	예취		
4	김치 저			34	木			64	섬득		
5	날릴 양			35	爪(ㄸ)			65	치첩		
6	책상 황			36	犬(ㄹ)			66	척결		
7	가릴 간			37	①			67	총채		
8	이 식			38	①			68	피의		
9	범 표			39	②			69	다듬잇방망이		
10	목책 채			40	②			70	부스럼		
11	갈 차			41	①			71	절름발이		
12	산높을 잠			42	①			72	便(片)紙		
13	부릅뜬 진			43	①			73	天地		
14	쫄 탁			44	②			74	乳兒		
15	진한술 주			45	②			75	[55]		
16	들 경			46	①			76	[59]		
17	갈비 협			47	침저			77	[62]		
18	도마 조			48	절양			78	[66]		
19	권할 용			49	건각			79	[67]		
20	웃깃 금			50	이소			80	깍휴		
21	사나울 념			51	감여			81	조세		
22	어리석을 당			52	해제			82	포수		
23	찾을 먹			53	축석			83	잠체		
24	수레 로			54	서직			84	좌단		
25	아롱질 비			55	초산			85	추낭		
26	이슬 해			56	타호			86	정휴		
27	戈			57	번초			87	주판		
28	夕			58	애구			88	검순		
29	无			59	작예			89	탑상		
30	乙			60	모려			90	뇌외		
									흔석		
감독위원		채점위원(1)		채점위원(2)		채점위원(3)					
(서명)		(특점)	(서명)	(특점)	(서명)	(특점)	(서명)	(특점)	(서명)		

※ 뒷면으로 이어짐

※ 본 답안지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글씨를 칸 안에 또박또박 쓰십시오.

제92회 전국한자능력검정시험 특급Ⅱ [국가공인] 답안지(2)

답안란		채점란		답안란		채점란		답안란		채점란	
번호	정답	1점	2점	번호	정답	1점	2점	번호	정답	1점	2점
91	흰뇨			128	公布			165	始祖		
92	고창			129	恐怖			166	役事		
93	초습			130	從前			167	度支		
94	앵속			131	終戰			168	主管		
95	회자			132	輕油			169	巨創		
96	봉영			133	經由			170	國祚		
97	휴구			134	驅除			171	發掘		
98	비색			135	救濟			172	奉呈		
99	참취			136	教唆			173	滿面		
100	시권			137	巧邪/詐			174	虛妄		
101	손해를 보다			138	火攻			175	締結		
102	일찍 죽다/요절			139	威脅			176	내탕금		
103	말린 고기			140	窒息			177	참서		
104	중이 되다			141	病菌			178	胆		
105	편들다			142	傳播			179	窈		
106	재능이 뛰어난 사람			143	遮斷			180	逋		
107	[87]			144	醫療			181	집안의 식객		
108	[90]			145	勸獎			182	급히 달려가다		
109	[95]			146	粉塵			183	늦게 오다		
110	[97]			147	微細			184	後		
111	購買			148	林園			185	前後/內外		
112	稀薄			149	連(緣)累			186	서로 소리치며 울다		
113	停滯			150	淳朴			187	(부)모를 봉양하다/효도하다		
114	㉠用, ㉡備			151	飢餓			188	몇 해		
115	月花			152	阿膠			189	마침		
116	殃池			153	騷亂			190	흉년의 해		
117	理翼			154	墓誌銘			191	집집을 다니다		
118	是非			155	拙劣			192	손쓰다/걸식하다		
119	措當			156	省察			193	품팔이		
120	自着			157	纖維			194	밥 지어 먹다		
121	烏梨			158	織物			195	거친 식사/거친 밥		
122	肉策/計			159	抽出			196	명치와 간/몸속		
123	凍放			160	造成			197	~와 같다.		
124	角齒			161	伸縮			198	다만 입(으로 먹는 것)만 봉행했을 뿐		
125	戰死			162	彈性			199	얼굴빛을 보지 못하다.		
126	井/中之			163	廢棄			200	오래 걸려 늦었다.		
127	亡補			164	汚染						